20180610-1200-_2012528 -90216 18. 6. 8. 7:30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18년 6월 10일(주일) 제1200호

배우고 가면 더 안전하다!

2000선교본부 해외 아웃리치 스쿨 실시 … 6월 12일 오후 7시 30분 양재 화평홀

해외 아웃리치 스쿨이 한창이다. 2000선교본부가 실시하는 이 스쿨은 안전한 여름 아웃리치를 위한 필수코스이다. 1차는 지난 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됐고, 2차는 오는 6월 12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막 오른다.

성인공동체, 차세대, 대학청년부, 예수제자학교(JDS), 선교유관기관 담당자, 국제부 등 각 부서 해외 아웃리치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해외 아웃리치 스쿨에서는 아웃리치에서 지켜야 할 원칙, 전도를 위한 팁, 위기상황 대처법 등 실제적인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한다.

2000선교본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해외 아웃리치 주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다른 나라의 종교관련 법률 위반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종교법이 개정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아웃리치 준비단계에서부터 현장 선교사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아웃리치 갈 나라에서 지켜야 할 선교 보안 원칙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둘째,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선교사의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

사진은 CMN 케냐 아웃리치.

보안이 필요한 국가로 아웃리치를 갈 경우 선교사의 이름이나 모습, 사역지, 현지 기독교인이 노출되는 영상을 인터넷(유튜브, SNS 등)에 절대로 게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안전수칙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아웃리치에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연락망 숙지(가족, 아웃리치 팀원, 2000선교본부), 여권 관리, 단체행동 주의, 현지법과 생활규범 준수, 과잉친절 경계 등이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차세대 여름사역 시작!

6월 30일부터 8월 25일까지

차세대사역본부가 본격적인 여름사역에 돌입했다. 포문은 지난달 22일부터 어제(6월 9일)까지 이어진 전국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열었다. 이번 교사강습회에는 주일학교 교사와 여름캠프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대거 참여했다. 북경, 상해, 청도 등 해외 비전교회에서도 진행되었다.

올 여름 차세대 여름캠프는 '바울, Jump to the World'를 주제로 막 오른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6월 30일 남양주 유치부를 시작으로 8월 25일 인천 온누리교회 헤븐리키즈까지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국내 10개 캠퍼스와 서산과 태안 기도처, 안산M센터와 김포M센터 등지에서도 실시된다.

채기석 목사(서빙고 차세대)는 "2018 차세대 여름캠프를 통해서 차세대들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51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독후감 공모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독후감 공모전이 오는 20일 마감된다.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책을 읽고 A4 2~3매 내외(바탕체, 글자크기 12, 줄간격 기본) 또는 200자 원고지 15~20매 내외로 독후감을 작성해서 6월 20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5길 38 두란노빌딩 302호, 독후감 공모전 담당자 앞) 하면 된다.

접수: webmanager@duranno.com

마리아행전 20일까지 선착순 마감

안내데스크나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

마리아행전과 직장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에 참여하고 싶은 여성들은 참가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마리아행전 2730명, 직장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 630명이 신청했다.

마리아행전 참가자는 오는 20일까지만 받는다. 17일까지 운영되는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마리아행전 4만원, 직장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 2만원이다. 20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각각 2만원과 1만원 할인해 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부 흥운동 마리아행전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사랑의 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마리아행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오후 7시 30분에는 직장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이 열린다.

여성사역본부는 "마리아행전 참가자를 20일까지 선착순 모집하기 때문에 참가를 원하는 여성들은 가능한 빨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현주 기자

특집_ 온 누리에서 만난 온누리 2면 기획_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4-5면 기고_ 명화와 함께 읽는 성경 8면

20180610-1200-_2012528 -90216 18. 6. 8. 7:30 Page 2

온 누리에서 만난 온누리

"온누리교회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교사에서 목회자가 된 과천공동체 출신 지용호 목사

"7년 된 성도는 떠나라"는 말에 온누리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여전히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념이 없다.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노하우와 선교정신이 사역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만한 자산이 없다며 온누리교회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와 선교정신을 바탕으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네 번째 주인공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영광교회 지용호 목사다. 지 목사는 온누리교회 과천공동체 출신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만나고 싶은 성도들이 참 많다는 지용호 목사와 이현옥 사모.

대천영광교회 지용호 목사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 7년 남짓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오랜 전 일이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이름을 떠올리려면 한참 고민해야 했지만 온누리교회 정신만큼은 뚜렷하다. 지용호 목사는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시절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고백할 정도로 온누리교회에 대한 사랑이 크다. 그의 인생에서 온누리교회에서 보낸 시절만큼 소중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학원사역에 대한 꿈과 비전

"온누리교회를 처음 간 게 1989년이었어요. 대전에서 교사 생활하다가 서울로 학교를 옮기면서 이촌동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집 주변에 교회를 찾다가 온누리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이어온 지용호 목사에게 비친 온누리교회는 유별난 교회였다. 교단이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과정과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등록을 하려는데 교육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 등록하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새신자교육을 받고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특히 새신자교육과 바로 이어지는 일대일 제자양육이 좋았어요.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반과 양육자반을 수료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거든요."

교회 오면 성도들이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신선했다. 그때도 온누리교회는 평신도 사역자 양육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촌동에서 다시 과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과천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과천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하나로공동체(현 군포하나로청소년쉼터)에서 야학을 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재미도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유익했던 경험이었어요."

신앙이 성장하며 사명이 더욱 분명해졌다. 지 목사는 평소 학생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지 목사가 근무했던 학교는 미션스쿨인 광성고등학교였다. 그 학교에서 기독교반을 담당하면서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교회에서는 교사들과 활발하게 교제하면서 학원사역에 대한 꿈과 비전을 그려 나갔다.

"교회에서 교사들끼리 모여서 사역을 해보라며 교사모임을 구성해줬어요.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교사들끼리 세미나도 하고 수련회도 했어요.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해서 학생들을 더욱 잘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르심 따라 온 누리로!

지 목사는 1995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온누리교회를 떠났다. 부르심을 따라 온 누리로 파송을 받았다.

"하용조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추천해주셨어요. 사실 신학공부를 하면서도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크게 없었는데 하나님 뜻은 제 뜻과 다르더라고요."

신학공부를 마치고 교사생활을 이어가거나 미션스쿨에서 교목을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좀처럼 자리가 나지 않았다. 미션스쿨은 감리교 교단이 많은데 지 목사는 장로회교단 신학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자리 찾기가 더욱 힘들었다. 진로를 놓고 한참을 고민하다 미국 필라델피아 비브리칼 신학교로 유학을 갔다.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할때 CGNTV가 저희 부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인터넷도 잘 안되는 지역이었거든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곳이 지금 섬기고 있는 대천영광교회다. 2003년부터 1년 동안 대천영광교회 부교역자로 섬기다 다시 미국으로 가서 11년 동안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지 목사는 대천영광교회와 미국 한인교회 2곳을 섬겼는데 그 교회에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를 보급했다.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는 성도들의 신앙성장에 탁월한 도구잖아요. 저도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삶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를 목회에 적용하고 있어요."

2015년 대천영광교회 담임목회자로 청빙 받아 다시 한국에 왔다. 후임목회자로서 섣불리 교회에 변화를 주기는 부담스러웠지만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대천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벌써 일대일 제자양육을 수료했다. 최근에는 온누리교회 큐티사역팀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온누리교회 큐티사역팀을 초청해서 함께 사역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온누리교회와 함께 사역했으면…

지 목사의 말대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대천영광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이 무궁무진하다. 대천영광교회가 자리한 충남 보령시는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어르신들만 생활하고 있는 고령화 도시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에 이보다 좋은 지역이 없다.

차세대를 위한 사역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한 공동체가 보령시 한 지역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했는데 반응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지금까지도 그때 그 일이 회자될 정도다.

"충남 보령시가 외진 곳이다 보니까 교역자를 구하는 것이 힘들어요. 또한 이 지역에서 차세대 부서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차세대 사역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보령시 지역 교회들을 찾아오셔서 차세대 사역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용호 목사와 이현옥 사모는 그리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다며 꼭 안부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윤정순 권사님이 보고 싶어요. 연락이 끊겨서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늘 교회에 있습니다. 저희 부부를 기억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꼭 뵙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문의: 041-935-3489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구시 1길 21 대천영광교회

20180610-1200-_2012528 -90216 18. 6. 8. 7:30 Page 3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왕의 잔치와 하나님의 섭리

에스더 1장 1~12절

"실수와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에스더서는 10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대인에게 닥친 위험, 5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고, 규칙을 정하고, 자랑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고,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도하심과 개입 그리고 은혜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 왕궁에 있는 왕좌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장관들과 대신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지방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180일 내내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습니다"(1~4절).

오늘 본문은 그리스와 2차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인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어, 전쟁을 준비하고 6개월에 걸쳐 잔치를 열면서 자기 왕국의 부, 영예,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각 지방 지도자, 장수, 귀족, 장관들을 불러서 독려하고, 전략을 짤 목적으로 잔치를 벌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 결정과 행동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아테나와 페르시아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마라톤 전투'인데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6년을 준비해서 2차 전투를 했는데(살라미스 해전) 이 전투에서도 패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패하고 돌아와서 결혼한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를 결혼시킨 것입니다. 이 과정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시는 분입니다. 인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과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왕궁의 비밀 정원에서 수산 왕궁에 있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정원에는 흰색, 초록색, 푸른색의 고운 삼베 휘장들이 자주색 고운 삼베 줄로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걸려 있었고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이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으로 모자이크된 바닥에 길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금잔으로 마실 것을 내왔는데 그 잔들은 모양새가 각각 달랐고 왕의 포도주는 풍부해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음주의 규칙은 '제한을 두지 말 것'이었습니다. 왕이 모든 손님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라고 궁전의 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5~9절).

왕이 두 번의 잔치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신복들, 귀족들, 군사 지도자들을 위한 잔치를 6개월 동안 했고, 왕이 머무는 왕궁에 있는 높고 낮은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1주일 동안 열었습니다.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고 물자가 풍부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대단한 부와 영광과 화려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술을 마실 때 "제한을 두지 말라"는 규칙을 정합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질서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무질서한 잔치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독려하고, 전략을 짜고, 격려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취향과 성격, 마음과 사정, 성품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은 강하게, 여린 사람은 여린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번 말씀하시다가 안 되니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게 존중해주십니다. 그 사람의 사정, 형편, 취향, 성품, 배경에 따라 대해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 이끕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 넘어지게 만듭니다.

상황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네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네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네 영광을 가릴 것이다"(합 2:15~16).

여러분, 술을 드시지 마십시오. 권하지도 마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고, 수렁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왕이 규칙을 정한 것처럼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07일째 되는 날 포도주를 거나하게 마신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좋아서 아하수에로 왕을 섬기는 일곱 명의 내시, 곧 므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에게 말해 와스디 왕비를 왕관을 쓴 차림으로 왕 앞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보기에 아름다웠기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내시들이 전달한 왕의 명령에도 와스디 왕비는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격노해 화가 불붙듯 했습니다"(10~12절).

잔치가 끝나갈 무렵 왕이 그만 취하고 맙니다. 포도주를 거나하게 마셔서 기분이 좋아진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를 많은 남자들 앞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와스디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낯선 사람들과 술에 취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노리개처럼 비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왕비로서의 위엄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몹시 화를 냈습니다. 왕이 실수를 해놓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그 일로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왕이 이 사건을 문제 삼습니다.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귀족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디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의 면전에 나타나서는 안 되고 왕께서는 왕비 자리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왕의 칙령으로 내리시고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기록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왕의 칙령이 그 모든 광대한 왕국에 선포되고 나면 고위층부터 하층민까지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19~20절).

참 황당한 결론입니다. 실수는 왕이 하고 왕비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국을 잘 다스리고, 전쟁준비도 철저하게 잘하고, 잔치를 열면서 규칙과 질서를 지켰던 왕이 술에 취해서 사랑하는 왕비를 폐위시키고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부끄럽고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을 잘 다스리지 않거나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매듭을 잘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상황, 변화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술기운에 엉뚱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습니다. 와스디 왕비 폐위사건은 에스더라는 유대 여자가 왕비로 간택되는 기회가 되었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사용하셔서 뜻을 이뤄나가십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실수와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민족과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근심이나 좌절, 염려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180610-1200-_2012528 -90216 18. 6. 8. 7:30 Page 4

부부의 사랑만큼 훌륭한 자녀교육법은 없다

진짜 좋은 부모와 부부는 자녀와 함께 성장한다

지난해 7월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현황 및 예방 방안'에 따르면 부모가 영유아를 학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양육 스트레스'다. 무려 42.6%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부부 · 가족갈등(15.4%),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8.8%), 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8.4%) 순이었다.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녀양육 방식의 차이'이고, 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도 영유아 학대의 주요한 원인이다. 그렇다면 진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산업사회 이후 우리나라 가족구조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었다. 전통적인 대가족 사회에서는 부모 대신 조부모와 가까운 친척들이 자녀들을 돌봐주고 교육했지만 핵가족 사회에서는 부모만이 자녀의 유일한 양육자인 경우가 허다하다. 과거보다 부모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졌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교육이 각광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자녀교육의 핵심은 '자존감 높이기'

"자녀교육의 핵심은 지식을 넓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한 말이다. 좋은 부모는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칭찬'이다. 부모에게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사회적응력이 높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 400명을 3년 6개월 동안 추적 조사했더니 부모에게 칭찬을 자주 들었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사회적 응능력이 두 배나 높았다. 관건은 효과적으로 칭찬하기다. 유용한 칭찬 기술이 있다.

첫째,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사소한 일에도 칭찬해야 한다. 자녀에게 칭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칭찬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둘째, 칭찬을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 아이들은 지나간 일을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칭찬하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칭찬을 통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넷째, 칭찬할 때 표정과 어감도 중요하다. 부모의 표정, 눈빛, 어투가 칭찬의 효과를 배가시킨다.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자녀들에게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라고 이야기해보자. 자녀들의 눈빛부터 달라질 것이다.

지혜롭고 건강한 '훈육'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훈육은 필수조건이다.

배우자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1. 아는 척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한다.
2. 존중하고 수용하고 진솔하게 공감의 태도를 갖춘다.
3. 바른 말보다 좋은 말을 더 많이 한다.
4. 적절한 질문을 활용한 코칭대화를 한다.
5.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한다.

아빠들이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는 7가지 방법

1. 출장을 갈 때 자녀를 데리고 가라.
2. 자녀들의 활동에 참여하라.
3. 스케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자녀를 위해 사용하라.
4.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라.
5. 취미가 있다면 자녀들도 참여시켜라.
6. 매일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시간을 가져라.
7. 가족과 함께 안식일의 휴식을 취하라.

건강한 방식의 훈육이 자녀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자녀를 훈육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일관성'이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지혜롭게 훈육해야 한다. 유념해야 할 점은 온갖 좋은 말로 구슬리거나 매를 들고 야단친다 해도 자녀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면 부모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분노가 차오르면 폭발하고 이성을 잃을 수 있다. 본래 아이에게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가 온데간데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부모의 분노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부모는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차분한 말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노력도 필수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훈육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게 지나치게 화가 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일단 그 자리를 떠나라. 가령 "지금 엄마(아빠)가 화가 나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 잠시 후에 이야기하자"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다.

둘째, 호흡을 가다듬는다. 화가 나면 호흡이 짧아지고 거칠어진다. 그 순간 복식호흡을 하면 감정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기 때문이다.

셋째, 화가 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분노에 휩싸인 자신을 한 발짝 물러나 바라보면 객관적으로 왜 화가 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자녀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저 녀석이 무슨 일이 있나? 이번에는 화내지 말고 차근차근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와 같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훈육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문제가 있어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아빠는 엄마만큼이나 중요하다

아빠는 엄마만큼이나 중요하다. 올바른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통해서 자녀가 성장하기 때문이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지 못한다. 최근 자녀들에게 미치는 아빠의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아빠가 육아에 참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리더십과 융통성이 있고 사회성도 높다. 엄마는 학습 위주의 놀이를 하지만 아빠는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아빠와 함께 온몸으로 하는 놀이는 아이의 오감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주도성을 길러줄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아빠들이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아빠들이 자녀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하루에 고작 8분 정도 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다.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아빠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물리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써야 한다. 힘들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녀와 보내는 물리적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랑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뒹굴고, 함께 재미있는 만화를 보면서 사랑을 느낀다. 주말에 공원에 가거나 바닷가에 가는 것도 추억이 될 수 있다.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다.

좋은 부모는 좋은 부부에서부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부부가 되어야 한다. 서로에게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말을 하지 못하는 영아들조차도 부모가 대화하는 동안 부모의 표정과 몸짓, 목소리 등을 통해 부부관계를 파악한다.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부부사이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대화법이 있다.

첫째,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배우자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말을 끝내기 전에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내(남편)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상대방이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둘러서 말하지 않고, 서로 칭찬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했다.

20180610-1200-_2012528 -90216 18. 6. 8. 7:30 Page 5

전문가 기고

아빠의 최고 양육법

최대한 공감하고, 경청하며, 질문하기

김정순 목사
(부천 온누리교회)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는 오늘날 교육에 대해 "인공지능 시대에 존재 의미가 없어진 지식 제일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은 많이 아는 것(지식)을 넘어서 아는 것을 활용하는 능력(사고)"이라고 말했다. 아인슈타인도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시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기로에 서 있다. 아빠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안내하고 양육해야 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경쟁과 미디어로 말미암아 이미 가족해체를 맛보고 있는 상황이다. 아빠들은 가족 간의 화합과 소통을 간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경제적 책임만이 아빠의 역할로 치부되고 있다. 이 시대 가족들은 복잡한 생활과 저녁이 없는 삶 속에서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와 있다. 유치부 아이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적인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고, 사춘기 자녀들은 미디어를 자신의 돌파구 삼아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이혼 가정의 증가는 혼돈상황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상관계이론에서는 3세 미만은 엄마의 사랑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3세 이후부터는 아빠로부터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며, 7세 이후부터는 또래 집단인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많은 보고서에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범죄자로 이어지는 결과는 아빠의 부재에서 오는 영향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아버지를 '아바(ABBA)'라고 부른다. 이 단어에는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교육자'라는 네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분이시다.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위임자로서 그 역할이 동일하다. 아빠의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아빠들이 가족과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에 대한 비전

크리스천 가정의 일반적인 교육목표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너무 포괄적이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빠져있다. 그래서 종종 길을 잃을 때가 있다.

우리는 세상적인 목표와 하나님 나라의 목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부모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적인 욕심이 앞세워 길을 잃기도 한다. 부모에게 확실한 신앙관(가치관)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길을 잃기도 한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를 몰라서 길을 잃기도 한다.

> "창의적 인재가 요구되는 인공지능 시대 아버지들은 공감하고, 경청하고, 질문하는 유대인들의 토론식 교육 '하브루타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늘 곡예를 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에 맞춰 기독교 교육과 세상 교육을 병행하는 최상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 최선의 교육을 하려 한다. 세상 교육 위에 믿음을 더하느냐, 믿음 위에 세상 교육을 더하느냐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그레고리 슬레이톤의 저서 〈아빠의 사랑법〉에서 "한 사람의 인생 비전에는 경력에 대한 비전, 자신의 인간됨에 대한 비전, 가족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 중에서 가족 비전은 장기적인 행복과 성취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 비전을 6가지 질문으로 설명했다.

첫째, 당신은 아내와 어떤 관계를 갖기 원하는가? 둘째, 당신은 자녀와 어떤 관계를 갖기 원하는가? 셋째,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넷째, 성장한 자녀들이 당신 부부와 어떤 관계를 갖기 원하는가? 다섯째, 자녀들이 그들의 배우자나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갖기 바라는가? 여섯째, 가족이 하나 되도록 도와주는 핵심가치들은 무엇인가?

아빠들은 이것을 기록하고, 자녀들의 연령에 맞게 제시해야 한다. 가족회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아이들에게 다른 제안이나 수정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자녀들이 가족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또한 가족 비전을 액자로 만들어 걸어두고, 일 년에 두 번 정도 가족회의를 소집해서 "가족 비전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으면서 이 비전이 자녀들의 마음 중심에 있게 해야 한다. 매일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녀교육

바울은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엡 6:4)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즉, 정서적으로 먼저 평안을 갖고, 그 다음에 영적인 말씀을 갖고 훈계 하라는 것이다. 아빠들이 특별히 못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다.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엄마와 아빠들의 부모교육인 '와이즈 패밀리'와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것은 엄마들에게는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아빠들보다는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나은 접근을 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아빠들은 자녀들에게 공감하고, 경청하고, 질문하는 것을 매우 생소해 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10주 동안 아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은 "배웠다"였다. "공감과 경청과 질문을 어떻게 하는 줄 몰랐다"고 고백하는 아빠들도 있었다. 나는 와이즈 패밀리와 가스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아내와 자녀에게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아빠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자녀들이 활개 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다. 창의성의 기본은 공감과 경청과 질문이다. 아이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아빠들이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임상심학자이자 라이프 코치인 스테판 B 폴더는 저서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요소 아버지〉에서 아버지 유형을 5가지로 나누었다.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 '시한폭탄형 아버지', '수동형 아버지', '부재형 아버지',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가 바로 그것이다. 각 유형의 아버지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어떤 아버지'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 것이다. 폴더 코치는 약 10% 정도가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라고 했다. 멘토형 아버지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자긍심, 공감, 일관성을 갖게 한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다. 그는 자서전에서 "아버지는 배움이 단지 기억력 훈련이 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가르치기에 앞서 내가 스스로 이해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나 스스로 해답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기 전에는 절대로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회고하였다.

창의적 인재가 요구되는 인공지능 시대 아버지들은 공감하고, 경청하고, 질문하는 유대인들의 토론식 교육 '하브루타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버지들은 절대적으로 자녀와 질적으로 함께 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책과 성경을 가지고 그 질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공감과 경청과 질문하면서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자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청하는 아빠의 최고 양육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80610-1200-_2012528 -90216 18. 6. 8. 7:30 Page 6

라마단과 무슬림 그리고 우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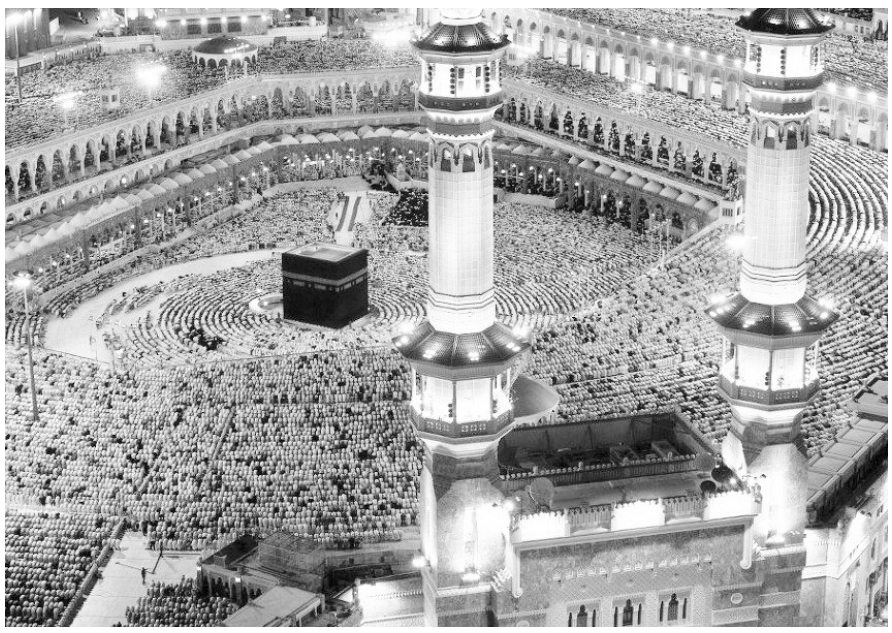
관심과 기도만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지금은 라마단 기간이다. 라마단은 이슬람의 금식기도 기간을 의미하는 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라마단과 무슬림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슬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서빙고 아랍어예배 박미애 전도사가 라마단과 무슬림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 알려주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박미애 전도사
(서빙고 아랍어예배)

전 세계 무슬림들은 지금 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달을 보내고 있다. 바로 지금이 이슬람력으로 9월인 '라마단' 달이기 때문이다. 이 달은 무슬림들에게 매우 성스러운 달이다. 무함마드는 이 달을 '천국의 문들이 열리고 지옥의 문들이 닫히며 사탄들이 구속되는 달'로 묘사했다. 무슬림들은 이 달의 마지막 열흘 중 홀수의 밤(21, 23, 25, 27, 29일)에 무함마드(이슬람교의 창시자)에게 코란의 첫 계시가 내려졌다고 믿는다. 이 밤을 '권능의 밤(라일라툴 까드르)'이라고 하는데 코란은 이 밤을 천 개의 달보다 더 은혜로운 밤이라고 묘사한다.

하디쓰(무함마드의 언행록)는 무함마드가 권능의 밤에 알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고 죄를 용서 받기 위해 밤새 기도에 전념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라마단의 마지막 열흘을 중요하게 여기고 권능의 밤에 복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



이슬람 단식월인 라마단을 맞아 많은 무슬림들이 기도하고 있다.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한 정결의식

라마단 기간 동안 단식은 무슬림들에게 종교적 의무로 정해져 있다. 라마단 달의 단식은 코란(2장 185절)과 무함마드의 하디쓰에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무함마드는 라마단 기간에 단식을 하면 모든 과거의 죄들이 씻겨 용서받는다고 했다. 무슬림들은 단식 중이나 단식 직후에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다. 무슬림들에게 단식은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한 정결의식이다.

라마단 금식 시간은 새벽 동이 틀 때부터 저녁 해가 지는 때까지 이어진다. 이 시간 동안 음식을 비롯해서 물, 담배, 성관계 등 일체의 육체적 욕구를 금하도록 되어 있다. 단식을 통해 가족과 동료들이 서로의 무슬림 신앙을 점검한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거론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누구는 단식을 안 하더라"이다. 단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슬람 신앙을 의심받는다.

라마단은 무슬림들에게 축제의 달이기도 하다. 라마단은 단식 월이지만 해가 질 때 단식을 마치고 음식을 먹는다. 그때 먹는 첫 식사를 '이프타르'라고 한다. 이프타르는 평소보다 더 풍성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된다. 낮 동안 빈속을 달래주는 대추야자와 부드러운 수프 등의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한다. 때로는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프타르를 하기도 한다. 무슬림 여인들은 라마단이 단식이 아닌 이프타르를 위한 달 인양 낮 동안 허기를 달래며 가족들과 함께 할 식사를 정성껏 준비한다.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이프타르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오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들은 식탁 앞에 둘러앉아 단식을 마치고 일몰 예배의 시작을 알려주는 소리인 '아잔'을 기다린다. 이프타르 후에는 일가친척들 집에 방문해서 늦은 밤까지 라마단 축제를 즐긴다.

오직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라마단 한 달 동안 무슬림들은 자녀들에게 이슬람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전승시킨다. 낮 동안은 단식하고 저녁시간에는 이프타르를 함께 먹으며 자녀들에게 무슬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친다. 라마단 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종교적 메시지를 통해 무슬림 자녀들은 이슬람을 깊이 알아간다.

올해 이슬람 세계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킨 광고 동영상이 있었다. 그 동영상 내용은 한 무슬림 남자아이가 클린턴 대통령, 푸틴, 북한의 김정은까지 이프타르에 초대하는 내용이었다. 그 소년은 자신들은 배척당하는 자요, 사하다(신앙고백)때문에 혀가 잘린 자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이프타르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피력한다. 이처럼 무슬림 자녀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슬람의 종교적, 정치적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장한다.

무슬림에게 라마단은 하나가 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무슬림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뉜다.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모범을 의미하는 '순나'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한다. 반면 시아파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혈통만이 이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파이다. 수니파와 시아파뿐 만아니라 자국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있다. 그러나 라마단은 그들이 오직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도록 한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에도 무슬림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25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다. 그들이 라마단 단식을 신실하게 지키든, 그렇지 않든 고국의 가족들과 함께 했던 이프타르를 그리워하고 있다. 단식을 잘 지키지 않는 무슬림들도 라마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 대부분이 라마단이 만들어준 추억과 영적 메시지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다른 영적 세계에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 어둠의 세계에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먼저 그들을 향한 관심이 필요하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마 9:36).

무슬림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그들을 향한 관심이 아니라 근심에 빠져있다. 무슬림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커져갈수록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한국에서 라마단은 5월 16일 시작해서 6월 14일에 마친다. 라마단이 며칠 후면 끝난다. 지금 신실하다는 무슬림들은 권능의 밤에 주어진다는 축복을 바라며 마지막 단식에 힘을 쏟고 있다.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당장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영적 장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라마단이 끝나도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목자와 추수할 일꾼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라'"(마 9:37~38).

추수할 무슬림 영혼은 많은데 그들을 섬길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무슬림 영혼을 주님의 세계로 이끌 추수할 일꾼으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제목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라마단과 이프타르를 그리워하고 있다. 단식이 천국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거짓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 오늘도 수많은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슬람의 메시지에 고무되고 있다. 무슬림 아이들은 이슬람을 전승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

20180610-1200-_2012528 -90216 18. 6. 8. 7:30 P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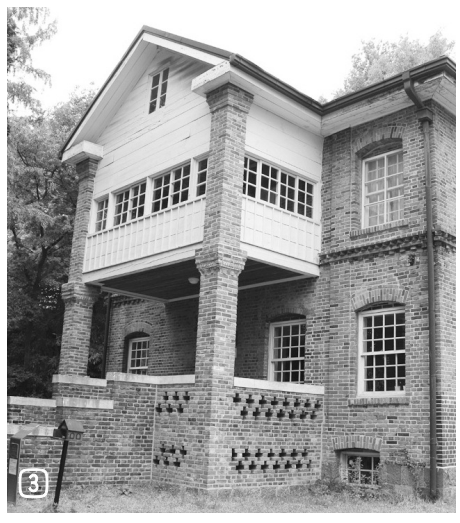
한국 선교, 그 흔적을 찾아서

크리스천이라면 꼭 한번…

호남 선교 역사를 한눈에 '광주 양림동역사문화마을'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본지에서는 '한국 선교, 그 흔적을 찾아서'를 주제로 여행도 하고, 기독교 순례도 할 수 있는 선교여행 코스를 추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코스는 호남 선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양림동역사문화마을'이다. 선교사들의 생활상과 근대화 상징이 된 건축물, 아기자기한 예술품에 푸짐하고 맛도 좋은 남도음식까지 맛볼 수 있는 선교여행지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①양림산 선교사 묘소. ②선교사들이 사용했던 물품들. ③우일선 선교사 자택.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양림동역사문화마을은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여행지다. 근대화의 상징이 된 건축물과 예술품, 맛좋은 남도음식까지 맛볼 수 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호남선교를 개척했던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이 묵상하는 이들이 드물다. 양림동역사문화마을을 선교여행지로 추천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양림동역사문화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TV에서나 볼 수 있는 다방, 의원, 의상실 등 고풍스런 옛 멋을 뽐내는 건물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옛 풍경과 이야기가 마냥 신기한 어린아이부터 추억을 회상하는 어르신까지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의상실에 가면 개화기 멋쟁이들이 입던 원피스와 양복을 대여해 주는데 그 옷을 입고 당시 사람이 되어보는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양림동역사문화마을은 크리스천들을 위한 기독교 순례지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 일대는 미국남장로교의 호남선교 스테이션이었다. 살아있는 선교박물관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생활상과 시대상 등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호남 선교와 선교사

1904년 12월 25일 광주 양림동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을 찾아와 주민들과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이가 바로 유진벨 선교사와 오웬 선교사다. 첫 예배 설교제목이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은총'이었는데 그 예배에는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선교사들의 임시사택을 건축할 때 구경온 주민들을 초대한 것이다. 유진벨 선교사는 자신의 사택마저 전도도구로 활용했다. 아쉽게도 유진벨 선교사의 사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우일선 선교사 사택과 오웬기념각 등 당시 건축한 건축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고풍스러운 멋을 자랑하는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양림동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산간벽지에 살던 주민들의 눈에 비친 서양식 건물은 신세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진벨 선교사와 동료들은 건축, 의료, 교육 등을 선교도구로 적극 활용했다.

"복음 이외에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양림동역사문화마을 탐방은 관광안내소에 들려 지도를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지도에 표시된 볼거리를 하나씩 방문하면 되는데 유진벨기념관을 가장 먼저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알고 보면 더 큰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유진벨기념관에 가면 호남선교 역사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유진벨 선교사가 가족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 큰 도전을 받는다.

"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진벨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첫 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적혀있는 글귀다. 당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음식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힘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주민들에게 환영받지도 못했다. 유진벨 선교사는 전남 나주에서도 선교를 하려 했는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포기한 상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 어떤 역경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멈추지 않았다. 유진벨 선교사가 그토록 헌신했던 이유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잘 담겨 있다.

"이 백성들에게는 복음 이외에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양림동에 복음이 전해지자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기 시작했다. 광주지역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목포, 군산 등 주로 항구 주변에서 시작했던 선교활동이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당시 선교사들은 양림동에 병원, 학교, 성경공부방, 교회, 주택 등을 지어놓고 선교에 활용했다. 그 덕분에 유진벨 선교사의 임시사택은 광주 진료소가 됐고, 그의 집 사랑방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학교가 됐다.

그 다음 코스는 수피아여학교, 광주기독병원, 우일선 선교사 사택, 오웬기념각, 선교사 묘소 등으로 이어진다. 양림동역사문화마을 바깥쪽에 있는 수피아여학교와 광주기독병원부터 둘러보면 수월하다. 광주기독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념관도 있다. 당시 광주기독병원에서는 놀란, 우월순(우일선), 서서평 선교사 등이 사역했다.

"한국인 의사는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 그 반점을 불에 태워야 하며, 그것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에 달군 철로 지졌다. 치료약으로 쟁기 끝부분을 쌀알 크기의 작은 조각으로 두들겨서 삼켰다."

광주기독병원의 2대 원장 우월순 선교사가 남긴 기록이다. 무속과 주술을 통한 치료가 일반적이던 당시 사람들이 선교사들 덕분에 과학적이고 서구적인 치료를 받게 됐다.

광주기독병원 맞은편에는 수피아여학교가 있다. 수피아여학교는 1908년 개교했다. 당시 선교사들에게 교육선교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다. 호남선교부연례 보고서에 '학교선교는 가장 큰 전진'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선교사들이 집중했던 사역이었다. 수피아여학교는 1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성장하며 명문학교로 발돋움 했다.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학생들을 배출해내고 있다. 배유지기념예배당, 수피아홀, 윈스보로우홀 등의 건축물들이 남아 있다.

어비슨기념관 2층에는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다. 어비슨 선교사는 농촌 재건운동 및 문맹퇴치를 위해 힘쓴 선교사다.

그 다음 행선지는 오웬기념각이다. 오웬 선교사는 유진벨 선교사와 함께 호남선교의 개척자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시골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과로로 1909년 소천했다. 오웬기념각은 예배당 및 집회장소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강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지막 코스는 우일선 선교사 사택과 선교사 묘소 탐방이다. 우일선 선교사 사택은 양림산 중턱에 있다.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주택이다. 잔디밭에서 올려다보는 2층 사택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른다. 우월순 선교사는 오방 최흥종 목사와 함께 나병환자들을 돌보는데 한평생을 바친 하나님의 사람이다.

양림동역사문화마을 탐방 종착점은 양림산 선교사 묘소다. 이곳에는 선교사 22명이 잠들어 있다. 양림산을 5분 남짓 오르면 선교사 묘소가 나온다. 유진벨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 오웬 선교사 등 이곳에서 순교한 선교사들과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천국에 간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무덤이 있다.

양림산 선교사 묘소에서 만난 김선후 씨는 "선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면서 "크리스천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야 할 여행지"라고 소개했다.

추천코스

유진벨기념관–광주기독병원, 수피아여학교–어비슨기념관–오웬기념각–선교사 묘소

20180610-1200-_2012528 -90216 18. 6. 8. 7:30 Page 8

전문가 기고_명화와 함께 읽는 성경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이고,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

신앙의 핵심은 ‘영성’과 ‘실천’의 조화(균형)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일.하.세. 아카데미 강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면 금방 친해진다. 친하니까 함께 먹기도 하지만, 함께 먹을 때 더 친해진다는 소리다. 왜 그럴까? 식사할 때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옥시토신은 신뢰, 사랑, 애착의 호르몬이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스트레스가 줄고 정서가 안정된다. 식사 자리는 친교의 장으로 딱이다. ‘한 솥밥 먹는 사이’라는 말과 ‘식구(食口)’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왔다.

식사하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떠오른다. 예수님 부활 이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한 식사도 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함께 식사하는 일이 많았다. 이것을 아가페, 즉 ‘애찬(愛餐)’이라고 한다. 성찬(聖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들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부활을 약속받는 절차다. 애찬은 일상에서 약식으로 행해지는 성찬(聖餐)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많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아래서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성대하게 대접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압제를 피해 약속의 땅으로 떠나기 전날 밤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빵을 선 채로 함께 먹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다. 광야에서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의 음식인 ‘만나’를 내려 함께 먹게 하셨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오병이어의 기적도 식사 이야기다.

예루살렘 외곽 작은 마을 중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도 베다니에 있었다. 마르다 자매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들이다. 오늘은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미술의 거장 ‘디에고 벨라스케스’와 역시 17세기 플랑드르 바로크의 거장 ‘페테르 파울 루벤스’가 그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라는 같은 제목의 그림 두 점을 보면서 성경을 묵상해 보고 싶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 10: 38~42).

벨라스케스(좌)와 루벤스(우)의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

마리아 없는 마르다는 없다!

벨라스케스의 그림부터 보자.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께서 드실 음식을 장만하고 있다. 마르다는 마늘과 고추 등을 빻고 있는 듯하다. 그녀 앞으로 물고기와 달걀이 보인다. 여기서 물고기는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리스어로 물고기를 뜻하는 ‘익투스(Ichthus)’는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첫 글자와 같다. 우리가 자동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달걀이 부활절을 의미하듯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을 상징한다. 이 말은 마르다가 단순히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신령과 진정으로 모시기 위한 경건한 일을 주관하는 맏딸이라는 소리다. 그런데 마르다의 표정을 보라. 뭔가 마뜩잖다. 급기야 마르다는 예수님께 고자질을 하기에 이른다. 왜 자기만 부엌에서 일해야 하느냐고 말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예수님을 모시기로 작정했으면 그렇게 하면 그만이다.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고 얌체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샘을 낼 일이 아니다. 마르다의 이러한 심정은 얼굴 표정에 잘 나타나 있다.

벨라스케스는 그림 오른쪽에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담았다. 이것이 창문 너머 풍경인지, 거울에 반사된 풍경인지 분명하지 않다. 창문은 어둠 속에 빛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게 창문 너머 풍경이라면 일을 시작할 때 초심을 잃고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빛이 되어 창문을 넘어 번개처럼 다가갈 것이다. 만일 그 모습이 거울에 드리운 모습이라면 벨라스케스는 마르다에게 ‘돌이켜 성찰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대신 던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게 하기 때문이다.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그려졌다면 루벤스와 그의 제자가 그린 그림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렸다. 부엌에서 달려 나와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마르다의 모습과 경청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 공간에 담아냈다. 부엌에서는 누군가가 마르다가 하던 식사 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집 안팎에서는 각양각색 짐승들이 평화롭고 고즈넉한 풍광 속에서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다.

루벤스는 마르다의 옆에 개를, 마리아 옆에 사슬에 묶인 원숭이를 배치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방식으로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개는 순종과 충성심의 상징이다. 지금 마르다에게 필요한 건 처음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자발적 순종과 충성심이라는 것을 루벤스가 강조하고 있다. 원숭이는 쉴 새 없이 쓸데없는 소리를 지껄여대는 ‘산란한 마음’의 상징이다. 묵상과 같은 훈련을 통해 집중하는 훈련을 받으면 충성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만 보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편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마리아 역시 실천적 노력이 따르지 않는 묵상적인 영성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공허하고, 산만한 원숭이의 수다와 뭐가 다르단 말인가. 마리아 뒤편으로 배치된 꽃과 과일 역시 시간이 흐르면 썩어 문드러질 덧없음과 공허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루벤스는 절묘한 솜씨로 그려냈다.

예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간단명료하다.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이고,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

마리아 없는 마르다는 맹목적이다. 제대로 된 성경 공부나 묵상훈련 없이 맹목적으로 남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서 사역에 매달리는 사역중독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다. 자기만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아실 것을 굳이 교만하게 남들을 비교하고, 재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소리다.

마르다 없는 마리아도 공허하다. 아무리 성경공부를 많이 하고 묵상훈련을 많이 했다하더라도 자기 몸속에 체화된 영성이 실천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입만 살아 움직이는 원숭이의 짹짹거림처럼 허망할 뿐이다.

예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그 오빠 나사로까지 모두 사랑하셨다(요 11:5).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한 양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20180610-1200-_2012528 -90216 18. 6. 8. 7:30 Page 9

황숙희 권사의 백수(白壽)로 이어진 삶과 신앙의 지혜서 11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 가지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진정 살아있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자면 생명의 근원이시요 힘의 근원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님이 생명줄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평화 속에서 쉼을 얻는 것을 뜻한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는냐?' "(요 11:25~26).

무엇이든지 살아있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줄에 붙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사랑의 줄에 붙어 있어야 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곁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낀다. 떨어져 있어도 부모나 친구의 마음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고 믿을 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된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있는 한 어디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5:5).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줄에 연결되어야 한다.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양분이 가지 끝까지 흘러가야 된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했다. 치유와 능력도 주신다고 했다.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힘을 얻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땅에서 많은 재물과 권력을 소유해도 하나님 사랑의 생명줄에서 끊어지면 실패자일 뿐이다.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진정 살아있고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생명의 권원이며 힘의 근원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성경은 말한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요 15:4).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신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과 결합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입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순간을 사는 일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를 사는 일이 한 생을 이룬다. 하루를 사는 일은 마지막처럼 정성을 다하고 평생을 사는 일처럼 길게 멀리 볼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의 시간을 의미 없이 낭비하고는 뒤늦게 "지난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살아볼 텐데" 하며 후회하고 아쉬워한다. 누구는 "공동묘지의 수많은 비석도 부끄러운 삶에 대한 변명"이라고 이야기한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살 수 없는 시간이다. 순간의 시간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하루를 사랑으로 사는 것은 너그러워지고 칭찬하고 겸손하고 진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를 사랑으로 끝내는 일은 반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이 수없이 많았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자. 행복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에 달려 있다.

꼭 봐야 할 다큐멘터리 '와일드 형제의 정글스토리'

정글에서 만난 하나님

한 선교사 가족의 생생한 정글생활과 모험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다. 지난 5월 CGNTV에서 방영한 '와일드 형제의 정글스토리'가 바로 그것이다. 와일드 형제가 들려주는 정글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회색과 파란색이 겹겹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토록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 창조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3년에 걸쳐 제작된 다큐멘터리 '와일드 형제의 정글스토리'는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은 와일드 형제가 정글에서 '방개'의 행방을 쫓는 이야기다. 2편은 발리 사람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조명했다.

참된 소망과 평안을 찾아서

와일드 형제는 선교사인 부모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모와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와일드 형제는 정글 한 복판에 있는 안개산에서 방개의 행방을 쫓는다. '방개'는 태즈메이니아주머니 늑대이거나 뉴기니아 싱잉독으로 추측되는 미확인 생물체이다.

와일드 형제는 방개의 발자국을 추적하고, 소형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방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 하지만 거듭되는 실수로 몸과 마음만 지쳐갔다. 그들은 방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와일드 형제의 고백 속에 그 간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방개를 찾으려는 우리의 소망은 불확실한 소망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정글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와일드 형제가 부모와 함께 발리를 방문해서 그곳 사람들의 생활상과 세계관을 탐구한다.

발리의 골목과 해변 곳곳에는 바나나 잎에 담긴 음식들이 있다. 그 음식들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발리 사람들은 여러 신을 믿는데 선한 신뿐만 아니라 악한 신도 섬긴다. 바닥, 땅, 물 위에 제물이 있으면 악령을 위한 것이다. 발리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신을 달래고, 신들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와일드 형제는 발리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참된 평안을 선물하기로 결심한다.

와일드 형제가 전하는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정글에서의 탐험이야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은혜 넘치는 이 다큐멘터리는 CGNTV 홈페이지(http://www.cgntv.net)에서 다시 볼 수 있다.

20180610-1200-_2012528 -90216 18. 6. 8. 7:30 Page 10

2018 장로수련회 참석자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2018 장로수련회 … 장로, 권사, 교역자 470명 참석

2018 온누리장로수련회가 지난 8~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스키빌리지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온누리교회 장로, 권사, 교역자 470명이 참석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장로수련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래서, 그리스도처럼’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場)이었다. 사역으로 바쁜 장로, 권사, 교역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안식하는 축복의 장이기도 했다.

2018 장로수련회는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특강 ‘독일 통일과 교회’, ‘당신 힘들었겠다’, ‘건강검진 결과해석’, 담임목사와의 대화, 중보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개회예배에서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로 변화된 것은 성령의 역사”라며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심길섭 장로(강촌공동체)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 조성현 장로(장로수련회 추진위원장)는 “이번 장로수련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로서의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다”며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하나 되는 장로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쓰임 받아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GNTV 한동대와 산학협력 프로젝트 실시

20대 시청자 공략할 다양한 전략 제안

CGNTV와 한동대학교가 함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번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의 ‘광고홍보미디어플래닝’ 수업 수강생들이 ‘20대를 위한 CGNTV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을 연구 및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4일 열린 최종 발표회에서 5개조 24명의 학생들은 유튜브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 어플리케이션 개발, 신규 브랜드 론칭 등 20대 시청자들을 공략할 다양한 전략을 제안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은 CGNTV 차세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장규열 교수는 “20대의 관점으로 제안한 아이디어가 CGNTV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역장로 5명, ‘일대일 대외사역자’로 파송

지난 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에서 열린 일대일사역팀 월례회에서 아주 특별한 파송식이 거행됐다. 사역장로 5명(권영석, 김주흥, 박공, 전태경, 홍종철 장로)이 일대일 대외사역자로 파송을 받은 것. 이날 파송된 사역장로 5명은 6월 12일부터 16주 동안 대광고등학교 교목(목사, 전도사 포함) 5명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한다.

박공 사역장로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은 교목이 선생님과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재생산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송일섭 사역장로는 “앞으로도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사역장로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6월 17일 (주일)
시간: 오후 3시 30분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 5월 6일~6월 2일까지 등록 성도

강남A	이정환	이동원
송현석	최윤희	이혜민
이정화	한윤석	정성천
		정소영
강남B	분당B	표현응
김현수	김문성	한승진
윤준택	김설희	
이승묵	양재완	송파
이은희	이중헌	김슬기
이혜정	임헌길	이승후
황해연	주성림	
		양재
강남C	서초A	김시용
이인자	백현주	김애희
	손금미	김영훈
도곡		김진순
김지현	서초B	우혜경
김호관	김영수	
박지윤	심희정	푸른누리
이나리	윤원기	김명수
이영훈		최형원
최지원	서초C	
	서현식	하 나
경기A		김흥광
김희남	서초D	엄미선
하혜련	김민정	이율성
	김정연	이지혜
분당A	김태훈	전수정
이동희	문정희	

‘우리를 자유케 하는 크리스천 재정원칙’

6월 25~26일 19시 20분 온누리기독문화전시관

돈을 어떻게 쓰고 모으는 게 좋을까? 크리스천들도 돈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투자, 주식, 펀드 등 금융관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린다. 사회선교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크리스천 재정원칙’을 주제로 개최하는 재정관리세미나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미나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오후 7시 20분 근린공원에 위치해 있는 온누리기독문화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채무문제, 부동산투자, 펀드, 주식, 보험 등에 관한 크리스천 재정원칙을 알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434, 3436

e-mail: ej1890@hanmail.net

/ 김영선 기자

통일 이전, 통일 과정, 통일 이후 교회의 역할

통일위원회와 기독교학술원 주최 통일세미나

지난 7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와 기독교학술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통일세미나가 ‘독일통일에서 교회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통일 이전 교회의 역할’, ‘통일 과정에서의 교회의 역할’, ‘통일 이후 교회의 역할’에 대해 동독에서 활동했던 Werner Kraetschell 목사가 발표하고, 정일웅 교수(전 총신대 총장), 지형은 목사(남북나눔 이사장), 주도홍 교수(백석대 부총장)가 토론했다.

통일 이전 교회의 역할에 대해 Werner Kraetschell 목사는 “동독과 서독 교회는 연합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다독여줬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일웅 교수는 “동독과 서독 교회가 연합해서 이념을 극복하고 이웃사랑 계명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rner Kraetschell 목사는 통일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과 통일 이후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동독과 서독 교회는 통일과정에서는 기독교인이 20%에 불과했던 동독주민들이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었고, 통일 이후에는 모든 시민들이 난민, 동독시민 등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형은 목사는 한국 교회도 독일 교회처럼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네 가지 덕목(인도적, 인륜도덕, 창조의 생태윤리,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경제)을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도홍 교수는 “한국 교회도 이념다툼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먼저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한터공동체 승합차 구함

탈북민 정착지원 및 주일예배 픽업용도

한터공동체에서 탈북민 정착지원 및 주일예배 픽업용도로 사용할 승합차(9인승 이상)를 구하고 있다.

한터공동체는 탈북자들을 위한 예배공동체다. 탈북민들의 한국생활 정착지원 및 신앙생활을 돕고 있다. 탈북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100여 명의 탈북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문의: 010-9071-3076

20180610-1200-_2012528 -90216 18. 6. 8. 7:30 Page 11

▌양재 병원심방전도팀을 섬기며

주님의 눈물 한 방울

/ 조현영 팀장(양재 병원심방전도팀)

양재 병원심방전도팀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과 아픈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경험까지 체계적으로 훈련받는다. 양재 병원심방전도팀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예배,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예배이다.

내가 병원사역에 헌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병동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목격하고 나서부터다. 어느 날 암병동에 봉사를 갔었다. 병실마다 환자들이 누워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모자라 모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병원에 갔는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 환자들이 많았다. 그 환자들의 슬픈 눈빛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를 병원전도에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다. 눈물로 고백하는 나를 주님께서 양재 병원사역 예배로 인도하셨다.

병원사역 예배와 환우중보기도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비전홀A에서 진행된다. 2006년 시작된 병원사역은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하면 심방전도도 이루어진다. 일반 성도나 각 공동체 병원사역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온누리교회는 물론이고 타교회 성도나 무신론자들에게도 찾아간다. 매주 주일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 안내 데스크나 사랑홀 양쪽 환우중보요청함에서 전도심방 요청서를 받고 있다. 작년에는 138명의 요청서를 받았다. 중보, 심방, 영접, 세례 등 많은 사연이 들어오고 있다.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다. 몇 주 전에는 각별한 효심을 가진 딸의 요청이 있었다. 그 자매의 어머니는 불교 신자이며 제사를 고수하시는 분이었다. 어머니께서 심부전증으로 입원하자 딸이 급하게 병원심방 전도를 요청했다. 사역자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했다. 훈련된 영접팀과 새로운 사역자가 하나 되어 그 자매의 어머니에게 단숨에 달려갔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더니 그 어머니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질병과 아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양재 병원심방전도사역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질병과 아픔에 시달리는 환우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병원심방전도사역팀이 전도 전문을 유창하게 외우는 것보다 주님의 눈물 한 방울을 흘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온누리색소폰앙상블 간증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선율

/ 조금태 총무(온누리색소폰앙상블)

나는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조카의 권유로 2003년 '40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에 참석했다. 그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세례를 받았다. 그 뒤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자 가족들과 주일예배에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느껴졌다.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다. 당시 남성들 사이에서는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는 것이 로망이었다. 그 로망을 이루는 꿈을 꾸며 가벼운 마음으로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다.

색소폰을 배우고 양재천 색소폰 동아리 공연과 인천 영락원(양로원)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큰 기쁨을 느꼈다. 처음에는 나의 연주가 듣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기대하기 보다는 악기를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하지만 서툰 연주 실력에도 흥겨워하시는 영락원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난 다음부터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 연주가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꼈다.

온누리교회에도 색소폰으로 찬양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이 공동체의 이름은 '온누리색소폰앙상블'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2011년부터 참여하게 됐다. 온누리색소폰앙상블은 색소폰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공동체가 연주하는 색소폰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 물론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조화로운 색소폰 소리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오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악기 하나를 다루는데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인내하시는가.

앞으로도 온누리색소폰앙상블은 색소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마음이 열리기를 바란다. 부족하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온전히 내 삶을 드릴 것이다. 색소폰 연주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 연주할 때마다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주고 응원해주는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온누리색소폰앙상블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언제든지 환영한다.

문의: 010-5499-9941

▌중국어예배 야외성령집회 간증

중국어예배의 꿈 그리고 소망

/ 김성철 팀장(중국어예배)

나는 20여 년 전 중국 신장 위그루 지역으로 여름 아웃리치를 갔었다. 중국 천안문 광장 앞에서 중국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중국을 넣어주셨다.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중국으로 아웃리치를 갔다. 중국어를 배워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싶은 꿈도 갖게 됐다. 중국어 학원도 다니고, 혼자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 중국어로 일대일 제자양육 하는 꿈을 준비하면서 때가 되면 중국어예배도 섬겨야겠다는 생각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이 그 꿈을 잊게 만들었다.

몇 년 전, 선교에 목숨을 거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한동안 쉬었던 중국어예배에 다시 오게 됐다. 지금 나는 중국어예배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는 1995년 창립되었다. 80% 이상이 중국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중국어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에서 훈련과 양육을 받고 역파송 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중국 교회의 차세대 지도자가 될 것이라 믿는다.

중국어예배는 매년 봄에 수련회를 가고, 가을에는 차이스타집회,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전도집회를 한다. 올 봄 수련회는 야외에 나가 중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번 야외예배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중국어예배 야외성령집회는 찬양으로 시작됐다. 목사님은 '흑암에서 나와 광명으로 들어가라'를 주제로 설교하셨다. 성령님이 강하게 일하시는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가 만든 어두움, 굶주림, 두려움, 집착, 과민반응 등을 치유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유학생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 중국어예배가 중국인 유학생들의 영혼 구원에 귀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안산M센터 캄보디아예배 간증

새로운 선교모델

/ 최영환 성도(안산M센터 캄보디아예배)

13개 외국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산M센터 소속 캄보디아 예배공동체 형제들이 경기도 안성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 총제적 선교)농장을 방문했다. CHE 농장은 선교훈련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캄보디아 예배공동체 안성 CHE농장 방문에서는 자연농업을 가르쳐 주는 것 외에도 몇 가지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캄보디아의 형제자매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어떻게 신앙 안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지, 또 다른 하나는 캄보디아로 돌아가서도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온 형제들의 고민거리도 한국의 젊은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 역시 진로와 비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자 기도제목이다. 그들 대부분이 한국에 근로자로 와서 본국에서 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형제들이 큰돈을 벌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막연한 것이 사실이다.

안산M센터 설문조사 결과,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사업과 농업이다. 그들은 캄보디아의 주어진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캄보디아 예배공동체에서 실시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준비한 프로그램이 바로 안성 CHE농장 체험이다. 안산M센터뿐만 아니라 김포M센터 캄보디아 지체들도 참석했다. 총 40여 명이 함께 했다.

캄보디아 예배공동체에서는 지체들의 자연농업 학습기회 제공 외에도 몇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그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한국생활 경험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캄보디아 현지 선교사님이나 먼저 귀환한 지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문인 선교 프로그램을 그들에게 맞춰 적용할 계획이다. 새로운 선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80610-1200-_2012528 -90216 18. 6. 8. 7:30 Page 12

장로칼럼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

박대호 장로
(양지 차세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 19:14).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마 18:14).

오랫동안 차세대 사역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다. 바로 차세대 사역은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묵묵히 행하는 성경적 헌신이라는 것이다. 나는 차세대 사역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섬김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한다.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주고 또 주는 사랑, 그런 마르지 않는 사랑이 차세대 사역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나는 13년 넘게 섬겨 온 서빙고 온누리교회 차세대 사역을 내려놓고 올해부터 양지 캠퍼스 차세대 담당 장로로 섬기게 됐다. 양지 캠퍼스는 다른 캠퍼스에 비해 훌륭한 예배와 소그룹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사와 아이들을 위한 교회의 지원 규모가 작아서인지 상당히 미비한 편이다. 그래도 아이들 간식을 기쁘게 섬겨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기에 항상 풍성함을 누린다. 반면 교사들에게는 김밥 한 줄 지원도 없다. 그러나 아이들을 맡은 전도사님과 교사들은 그야말로 일당백 섬김으로 전천후 사역을 하고 있다.

나는 지칠 겨를도 없는 교사들을 볼 때면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만 행복한 마음이 더 크다. 나도 젊은 시절 주일학교 교사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이들처럼 헌신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릴 때면 입가에 웃음이 맺힌다. 당시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위해 젊음을 바쳤다. 가끔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때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나는 유아부에서부터 파워웨이브까지 5개 부서를 동시에 맡고 있다. 그래서 5개 부서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살펴본다. 각 부서 예배는 11시에 일제히 시작된다. 모든 예배를 돌아보려면 지하에서 2층까지 종종걸음으로 오르락내리락해야 한다. 눈도장 찍듯 각 예배를 둘러보고 나오지만 교사들과 아이들은 매번 나를 반갑게 맞아준다. 더구나 그 짧은 방문에도 "격려해줘서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인사를 들으면 미안하기까지 하다. 그런 교사들과 아이들 덕분에 힘이 나고 기쁘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찰 때도 있지만 젊은 교사가 된 듯 다리와 주먹에 힘이 생긴다. 아직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지만 나에게 반갑게 달려오면 나도 크게 반기면서 거침없이 번쩍 안아 든다.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캠퍼스 차세대 사역은 빠듯한 환경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역이다.

차세대 사역은 선교사역과 닮은 점이 많다. 차세대 사역 현장은 척박한 환경이지만 주님과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곳이다. 힘이 들수록 은혜가 넘치는 곳이기도 하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은 성도 수보다 차세대와 선교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달려있다. 차세대가 건강하게 양육되는 것은 성인 성도의 부흥으로 이어진다. 성인 성도의 부흥은 선교사역자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나는 차세대 사역에 헌신하시는 교사들과 교역자들께 이렇게 외치고 싶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의 선교사들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더 많은 분들이 헌신했으면 한다.

권사칼럼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이미경 권사
(김포공동체)

1995년, 내가 35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그전에도 교회에 갈 수 있는 환경은 항상 열려 있었다. 내 주변에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어느 날, 아들 친구 엄마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당시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들을 데리러 가면 아들 친구의 엄마와 자주 마주치곤 했다. 그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셨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아들 친구 엄마가 나에게 함께 성경공부를 하자고 제안했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구절들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순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공부를 한 지 1년 반이 지나고서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 가까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주님을 매 순간 만나는 기쁨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자 교회에서 무엇인가에 헌신해 줄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절을 하거나 교역자들을 피해 다니기도 했다.

그렇게 무료하게 세월을 보내다 2005년 온누리교회를 알게 됐다. 당시 딸이 한동대학교에 입학했다. 한동대학교에서는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갈대상자〉라는 책을 나눠줬다. 그 책을 읽는 내내 감동과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찼다. 그 책을 통해서 한동대학교 전 이사장이신 김영길 총장님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호기심에 온누리교회에 방문했다. 때마침 맞춤전도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맞춤전도집회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했다. 식사와 간식 봉사, 시설 정돈 등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과 기쁨이 보였다. 이것이 섬김의 기쁨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지난날 헌신과 섬김을 부담으로 여겼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다.

온누리교회에서 나는 새가족사역을 5년 섬기고,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다. 지금은 김포공동체 대표 권사로 섬기고 있다. 대표 권사 역할은 교회와 지역공동체의 통로로서 경조사를 챙기고, 영적으로 무료해진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대표 권사라는 직분은 매 순간 겸손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다.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구한다.

대표라는 직분은 감투가 아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 가끔 사역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사역하는 데 큰 장애가 될 때도 있다. 하지만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긴다.

신앙에세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강미향 목사
(S브릿지공동체)

오늘날 미혼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나는 그들을 담을 영적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바로 서빙고 온누리교회 'S브릿지공동체'다. S브릿지공동체는 7년 전 만들어졌다.

S브릿지공동체 모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몇 가지 마음을 주셨다. 첫째, 그들은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세대이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지체들이 40대 중반에 이르렀다. 갓 사회에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보다 경험과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내적 에너지가 많다. 그들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쉽게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된다면 싱글로 사는 기간 동안 교회적, 사회적, 개인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셋째,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옛 부모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 가정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정관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준비된다면 그들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다.

S브릿지공동체 안에는 많은 헌신과 열정이 있다.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마다 탁월함을 보여준다. 섬기는 분야도 다양하다. 러빙핸즈, 장애인 섬김, 차세대 교사, 탈북민 섬김, 북한사역,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남산원사역, 선교사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다. S브릿지공동체 지체들의 섬김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한 알의 밀알로서 헌신하고 소리, 소문 없이 섬기기를 소망한다. S브릿지공동체는 대외적인 섬김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이다. 그들은 싱글로서 외로움을 경험해봤기에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지체들의 아픔을 잘 안다. 그래서 장례예배와 위로예배를 드리면 보통 30~40명의 인원이 달려와 함께 있어준다. 이렇게 귀한 S브릿지공동체 지체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었다. 부모가 사는 모습을 닮고 싶지 않거나 좋은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지체들이 있었다. 또 경제적, 환경적인 문이 열리지 않아 결혼을 미룬 청년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지체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돌아서고 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결혼하는 지체들이 계속 늘고 있다. 내게는 이것이 매우 큰 기쁨이자 감사다.

결혼이 결정된 S브릿지공동체 지체들을 대상으로 3주 동안 결혼예비교육을 실시한다. 가정을 준비하는 첫 발걸음을 성경적 삶으로 디자인하도록 돕는다.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S브릿지공동체 청년들이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독려한다.

배우자는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세워질지를 고민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그렇게 출발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소박하지만 내실 있는 결혼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관에서 시작된다. 싱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혼자 보내는 기간을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진리가 반석이 되면 진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인격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 나는 S브릿지공동체가 말씀 안에 튼튼하게 뿌리 내린 성령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20180610-1200-_2012528 -90216 18. 6. 8. 7:30 Page 13

삿포로에서 만난 귀한 교회

오직 성경, 오직 감사 '삿포로신생교회'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있겠냐만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교회들이 있다. 지난주 러브소나타가 울려 퍼진 삿포로에서 만난 '삿포로신생교회'(오카다 준이치 목사, 러브소나타 삿포로 실행위원장)도 그렇다.

삿포로신생교회는 시내 중심에 있는 오도리 공원에 자리 잡고 있다.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 자리에서만 100년 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삿포로신생교회는 1910년 세워졌다. 이름만 들으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新生), 올해가 창립 108주년이다. 오카다 준이치 목사가 9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삿포로신생교회는 '기독교 박해'라는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온갖 종교탄압에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삿포로신생교회 6대 담임목사 이토 카오루 목사는 종교탄압을 받아 3년 3개월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당시 일본은 식민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강요했다. '천황폐하는 신(神)'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른바 '황민화 정책' 속에서도 이토 목사는 '천황은 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죄인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그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토 목사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3년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천황폐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석방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신념을 지켰다.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천황이 신'이라고 쓰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삿포로신생교회 전경.

이토 목사는 혹독한 삿포로의 겨울 추위와 감옥에서의 모진 고문으로 동상(凍傷)에 걸리고, 몸에 상처가 끊이지 않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간신히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그 후유증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60kg이었던 몸무게가 40kg으로 줄어서 감옥 앞에서 이토 목사의 출소를 기다리던 성도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였다. 출소한 이토 목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셨다.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

이토 목사는 이 음성을 듣고 고난을 받은 것도, 고난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보우하심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에도 삿포로신생교회는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고 지금도 그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토 목사는 옥중에서 성도들을 협박해 헌금을 갈취했다는 누명을 쓰기도 했다. 그래서 이토 목사는 출소 후에 성도들에게 "헌금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한 다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봉헌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이 전혀 줄지 않았다.

삿포로신생교회 9대 담임목사 오카다 목사는 이와 같은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직 성경, 오직 감사'가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고양은평
김양희 윤경숙
김영선 김용수
조경미 이용숙
조창래 변철석
조형준 김영식
황숙령 최영이

관악금천
김수연 문혜자
김형렬 이정길
이순이 이미옥
임명호 조성수
최정민 서정원

광명
나태경 평석원
방영우 김태위
이은진 이순남

김포
박현자 양윤미
임명본 이근영

동대문중랑
조기삼 박동규

동작
민연정 유숙희
이수진 김민영
이정미 박현정
장주연 이지현
정숙자 정옥경
한상모 정구현
황공주 김은희

마포
권순남 이경옥
김미란 라가희
김은서 이태열
박승혜 강갑순
박연미 조혜욱
손영임 이명숙
신동윤 장현희
신명옥 유혜란
윤장래 강현원
이소정 이영주
정재희 김일숙
정집설 김재익
최아사 신혜용
홍대광 전진국

북누리
김한나 장옥주
양순희 이정희

서대문
권 력 조 영
김명중 홍정화
정진희 권영애

서빙고
김승연 고두연

성동광진
김나영 우정희
김우영 최정심
박보빈 윤정희
이만숙 장동연
이수아 김난아
이유정 양혜선
최명숙 양지혜
홍미정 박미희

성북
구영란 송용재
김규진 남정현
박재완 최윤기
이기백 김관수
임종민 김신광

신용산
김슬지 심상보
남구현 황성규
박신영 김병희
박혜정 조진영
방순영 김난영
성기원 이수관
이승현 이동미
최재용 김현태

양천
강규원 이영재
김영숙 신영춘
이시훈 이대우

여의도
양수연 조은남
최용석 이철호

영등포구로
김동희 김춘훈
김민경 표정희
김민수 김병균
김자연 이홍선
김정미 박유진
이승연 김찬숙
조성배 나상진

온누리미션
최혜원 오선주

용산
박진우 강명원
유은주 박은주

이수
윤정희 양영화
정유진 임미리
조연진 손은혜
조원익 강성은

이촌
류영정 박숙자
마대건 윤병수
성경주 이경순
정재연 이종희
조선희 허경희
최형문 노기홍
홍혜원 임경선

일산
김은혜 정은경
안철헌 이희도
최동식 변찬구
한규종 함우석
한혜민 박혜옥

중국어예배
ZHANG YUEHAN
김성철

중종로
문영민 안혜준
문지영 김혜수
백대현 조인식
신주현 허은진
안정자 김충희
이경빈 최효엽
조성임 곽현주
한재흥 박용원

찬양사역
김인영 양영화

한강
김아람 이보미
박윤순 최성구
소정숙 최향숙
윤영삼 전용우
최진영 안직현

공동체 없음
권희주 이혜주
김경애 신애현
김보경 구정희
김세은 박명희
김수연 이은주
우수진 김성은
이주연 한은주
임웅빈 김경수
장성경 이용주
정서윤 이분선
최상은 권신영
홍성오 김성환

OCC
최지혜 천영실

OEM
Jaeyoon Lee
김지영

S브릿지
고천수 오현수
구보경 김성은
김경희 박선하
김대영 김철수
김미지 경 현
김석태 노형근
김세호 김승민
김수진 최윤정
나숙현 조형미
남대관 김경덕
노승연 김선애
문성호 박수웅
박재호 조래철
배성아 김수영
배원열 조은숙
변경수 우경선
성백기 배대현
오다연 김미순
오지현 나은선
이근영 김희태
이금풍 이범석
이민희 정옥희
임희은 김보경
정 현 홍민순
차혜련 나은선

양재

강남A
공영구 이창배
김민정 권형민
김영주 한성희
김은정 한주미
배수산나 황경옥
변가령 이도연
엄금순 임애련
오동석 김형일
원숙연 박희숙
유금임 임애련
윤희정 오가전
장인상 류기범
정용구 신현식
한은희 봉성희

강남B
남미애 한종란
류지성 윤정숙
문재정 안명상
오창수 박차홍
유수경 김영주
윤주익 김문갑
이미란 신윤옥

강남C
강수경 정수선
길성환 윤호일
김성은 박혜경
김은영 이경진
김진영 홍지숙
손광섭 정병수
손정민 변애정
엄정원 안태교
이승아 김용주
한수현 이은정
황숙연 강은숙

강남D
서원석 윤원재
송영건 박대수
정인경 전지연
정재웅 노경한

경기A
박민경 김현숙
이세호 이윤석
이종훈 서광열
임수은 김라현

도곡
강충희 최종순
이승민 임혜진
장수진 김정선
최지원 최경애
황혜정 임혜정

분당A
박준형 성기범

분당B
송영민 이강민
이해원 윤호일
이효진 김소운
전지원 김진숙
조서영 배성희

서초A
김보영 김명주
남궁은경 한순혜
박유진 김명희
백애란 최영란

서초B
김종률 김지학
김지희 방혜영
박경희 정정희
심희정 장정순
안선란 정윤선
안원이 이영실
이성기 홍정화
전현정 김재희

서초C
김세윤 조재호
서현지 최미라
정봉철 장지선

서초D
권정윤 신지원
김혜겸 조정윤
이동철 윤원식
정인애 신지원
한봉준 윤원식

송파
권민정 김길선
김두홍 이명열
윤신희 김은미
이지연 오혜란
임성희 조다남
홍은영 이수현

양재
김금순 안현숙
김혜숙 김나연
배은형 신창순
백영렬 안권준
안희선 정혜손
여종준 김동준
이광선 이경섭
이혜주 장인옥
조병섭 김동수
진인준 조두현
최경애 김유순
홍명자 강선희
홍성준 이상현

푸른누리
김동훈 이길재
박수현 국정숙
이동일 신 헌
이승문 김동진
이화평 정현두
장윤정 김은경
장은경 윤홍재
최혜선 한정희

공동체 없음
이주연 한은주

Bridge33+
권 준 이강민
김계영 이정현
김성은 김영미
이혜영 현숙희
정문영 안철민
정재헌 김호영
홍규연 정희원

Harmony
유기성 김만호
정다윤 이미정

Point5
박대순 박준모
송재휘 박영선
송지연 김세현
이세빈 이원희
장지연 양정희
정수진 김정아

대청

갈렙
김사라 이화실

길
김다은 이연희
김영미 한성희
정한울 조은주
조수정 김미정

여호수아
고정은 황수경
곽다솜 고희숙
구자용 홍정화
권수정 박선향
김나영 강미순
김선혜 한진수
김은향 인정미
김정화 박소은
김주형 정우성
김태현 정상철
남민정 목혜경
배주연 황수경
신선미 어은경
신윤식 이승현
여지연 이정연
염마크 유웅열
원현지 이혜경
위대영 임종천
유미정 신윤옥
유세영 이경숙
유진희 이동순
정병주 박상규
정선교 도옥지
정소연 정순영
정지현 이용분
차승은 김은호
한지윤 송 진

요셉
강세미 이현철
고문정 이현철
김세훈 박준모
김희석 김헌수

하늘
강은서 현옥선
배장호 양계성
전예지 박수경
황태훈 김진수

허브
노소정 이지현
민예빈 한정희
이남주 문지호
이소윤 송정은
이정은 박은혜
이치원 강신규
이현지 최은영
조은혜 장문정
조형주 이정주
최수연 신 정
최주영 윤정희

CH630
오선미 정은영

J4U
박소영 박기호
백민경 김선영
변수연 최규연
옥채라 김소명
이정원 권은숙
이지혜 송경주

SNS
김동홍 양계성
김현아 김연희
남보람 김근영
박미경 김가영
박소명 하인혜
송한나 박진영
유연주 윤미애
유우상 이덕호
이윤정 신용애
이형석 장재근
전하나 이희인
조정민 이승기
최민규 현선웅
최수련 김귀남
황혜슬 윤정희

W
서상연 송기현

어린이일대일
김주원 김정무
허예범 윤미경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6월 17일(주일) 2부예배
수료대상자 오전 8:30분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수료대상자-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양재 수료대상자-양재 사랑홀)
수료예배대상자:
서빙고는 4월 1일~ 5월 31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양재는 4월 2일~6월 3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서빙고

김효구 장로반 (3040양육자반)
김규남
김동현
김미영
김선영
류대우
박영정
박준희
박해영
이경진
이윤진
이현주
장선영
차상윤
최방실
최지연
홍은혜

신동식 목사반
강희정
권미정
김남희
김보라
김성현
김영숙
김정렬
김정민
박경혜
박현옥
신동숙
오민정
이경은
이순실
이승우
이은정
이일지
이지영A
이철원
이한주
정세옥
조문기
조미정
조윤주
한지연
홍주영
홍준서
SONG NAM HAENG

이상기 장로반
강현숙
권오용
김도애
김준자
나영우
노학선
문경민
박윤자
성혜정
오명자
오문평
이용호
임명묵
임혜빈
최지점
홍현순

어린이 일대일 양육자반
강수진
김동근
김동현
김민지
김복균
김윤정
남춘희
박영정
박준희
여의주
오재영
이수미
이윤신
이윤진
이학필
이현주
장선영
장선우
정용구
차상윤
홍미정
홍은혜

양재

김영배 목사반
권해옥
이재성

양성민 목사반
고봉익

윤경숙 목사반
홍한아

이상진 목사반
김은미
민종근
박주오
백승정
안민아
이신현
이재환
이희정

이정환 목사반
방선주
이수정

이진숙 권사반
곽지영
권영민
권창수
김수연
김현숙
남동규
박영미
박하연
설희정
안혜성
이성희
이유경
이철성
이현정
임정국
장남희
정은실
최성호
황 철

정재욱 목사반
이진신

1200호 20180610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8. 6. 8. 오후 7:25 페이지 1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청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셔틀운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9시에 뜨는 별 예배 찬양인도팀 모집
모집: 싱어(남성), 콰이어(남녀무관)
자격: 온누리교회 세례교인, 오디션 및 면접
문의: 박근범 전도사(010-4939-2627)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반주 봉사자 모집
모집: 피아노 반주봉사자 1명
예배: 주일 11:20~12:30
연습: 예배 1시간 전(10:20~11:20)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CMN 마하나임 국내 아웃리치 모집
일시 : 6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6시
장소: 남양주 온누리교회(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프라자)
사역: 의료사역 (양방 & 한방), 미용사역, 수기치료
문의: 010-8898-3719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버스 출발

김포M센터 토요 활동 교사 모집
시간: 유치부(10:30~12:30), 초등 2~3학년 (14:00~16:00)
활동: 유치부(성경 이야기 및 찬양, 예배), 초등 2~3학년(공부와 성경읽기)
문의: 민경윤 선교사(010-2997-4347)

양 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을 받음

샬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장형식 총무(011-515-6174)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본관 B3층 JDS홀

공사랑 온누리 축구 선교단 모집
대상: 주변 믿지 않는 지인 혹은 가족 또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
장소: 언남고등학교 오후 12시~3시
문의: 오명석 총무(010-6470-7131)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본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 4부(청년) 오후 4:00 본당
[다문화] 주일 11:00 / 4층 온유홀

주중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10:30 본당
수요영성예배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쉘터

인 천
032.437.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주일예배장소 6월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6/3: 송도 컨벤시아(송도동 6-1)
6/10: 연세대 국제캠퍼스 종합관 (송도동 162-1)
6/17, 24: 송도 컨벤시아(송도동 6-1)
[중고등부 예배] 프리스페이스 3층(송도동 8-10)
[대학청년부,국제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 프리스페이스 3층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0/오후2시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중등/사랑부 11:20
꿈땅1부/고등부 9:00 헤븐리키즈 오후2시
대학청년예배 오후2시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00 / 2층 드림씨드홀(본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00 / 2층 스크랜턴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이훈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7 Tarn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문봉주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ǒ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박형준 신기섭
박태영 안광국 김종민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일영 강일하 권영환
권오향 권용갑 김경훈 김관수
김도균 김도윤 김병조 김상수
김성욱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아 김종호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렴문홍 마이크리
문영재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철웅
배행삼 변대섭 석승호 손신국
손정훈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차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우윤상 원유경 웨슬리맥커리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길중
윤석원 이강현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동훈 이민욱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요시하라마나부 전신익 전재표 전홍천
정상훈 정성훈 정재륜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전도사(전임)
강지영 길혜영 김은영 김재승
김진아 문장원 백인규 윤현규
이우람 이준인 임경헌 한영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이기복 박이호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곽상학 김기범 김종영 김창성
김혜경 데벤드라 라즈 랜디빼당쥘렉스 마주마누룽
바랏라살리 서수민 신정빈 손 숙
싱루아마납 안희진 이진이 이창호
유승덕 유진아 윤치연 임선아
최봉오 최성필 최일관 차제이미

◈전도사(파트)
강민석 강성효 강희성 고인호
고주민 김기락 김기태 김근희
김경민 김덕기 김덕현 김민석
김성웅 김세현 김세환 김승관
김승겸 김영언 김용석 김은하
김은혜 김정미 김진아 김주영
김충성 김태환 김태희 김한국
김형중 김형태 나지혜 노태규
박광규 박근명 박근범 박미애
박병연 박신광 박승홍 박은미
박은빛 박이호 박종익 박지원
박창홍 방세미 빌 케 배강석
배명지 배우리 백승범 서영철
서 철 소바수뉴와르 송동주 송우항
송지은 신경훈 신대종 신동욱
신하선 신현민 신현아 양진범
연공주 오준현 우승민 유 한
윤상복 윤수신 윤준석 윤효정
이루주 이민아 이보라 이선영
이성광 이세영 이수호 이완희
이용기 이용민 이우해 이원준
이은미 이은정 이지원 이진명
이창우 이춘호 이풍주 이현석
이혜지 임요한 임지성 임정민
임혜선 장미숙 장 빈 장유미
장윤진 장지은 장재원 정만희
정에스더 정영광 정영희 정지은
조경남 조묘구 조상훈 조준기
주영상 지수정 추대식 최규종
최대흥 최선재 최성규 최영빈
최재윤 최정현 최종현 최현웅
카와무라 요시키 하민수 하성희 한은선
허루슬란 허륜호 허영은 현신원
홍세나 황연신 황유일 khag-
vasuren Gan-Otgon Donald
Joshua Wabwire

◈사역장로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영석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선 김남열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순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길 김영수 김용성 김 웅
김원경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류지영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영태 박용국
박찬빈 배종수 백승웅 백호현
서진봉 서찬교 서창희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심춘보 안국영 안종인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완영 유재천 윤성열 윤영섭
윤영오 윤지준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융대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정강무 정돈영 정병규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윤채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최 명 최선수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하영철 하용기 한종대 한형식
함선호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기석 강동수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철호 강태욱
고 건 고다이라 고영주 곽진성
권득한 권오습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하 김기영 김기호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종 김명현 김명훈
김민호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인 김상집 김선호 김성규
김성묵 김성종 김성진 김연상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 완 김용기 김용호 김웅배
김 원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상권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노기홍 노흥규 류기범
명영찬 문성기 문쌍찬 문영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종현 박지수 박치완 박태성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규
박흥선 방찬종 배 문 배기영
백남인 백홍기 상병선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영범 송영태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영각 신학철 신헌승
신현길 신현종 심길섭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희돈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태환 양상식
양유식 양주현 양춘경 양충식
오상록 오성훈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병진 유병훈
유의준 유재홍 유 형 육동건
윤기홍 윤석우 윤영각 윤현덕
이경찬 이경호 이경훈 이관수
이광순 이광형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욱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곤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광 이재규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 철 이태열
이태환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광순 임내현 임병수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 훈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 광 장광열
장상환 장선철 장형준 전구영
전영수 전장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현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진종구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주관 최진성
최한우 최현재 편무옥 하성기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상규 한양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필우
허형석 호종일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마흥규 문태준 박동순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임웅규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서동희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신영 이수정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미라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혁재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곽병찬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인 김연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금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방 휘 신은혜 석지혜
이혜진 안은경 안은영 안지연
양지연 양현선 우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은 이예진 정경미
정다혜 조아라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한은미 황보승
강영은 한찬미 황대준 허윤선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권혁빈
금경연 김대진 김철진 김철희
김태완 문봉주 박만규 서 현
유현목 이영선 이한규 이 훈
정장철 정재욱 최영민 니 시 야
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심상현
서재범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부목사
강일하 강찬호 권오광 금동섭
김도일 김미정 김명성 김인숙
김시연 김성종 김재형 김찬우
김태환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신웅 박수환 박주영 박종훈
방지남 배성우 백인호 서성광
신영흠 엄영기 여필종 유동우
유정훈 이경상 이경호 이상훈
이성영 이은택 이재웅 이지훈
이종실 임봉순 전상현 전현규
정동윤 정용환 정호석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대웅 최영진
최정무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홍정표 Bob Koo James Park
Joseph Chu Joe Lee Lee Yi
Sam An

◈전도사
강은주 김성민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김창식 김현경 구혜선 노경호
마커스 문하나 박미은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욱
배윤희 백도훈 변범섭 서민표
서재욱 설상정 손미경 손주은
송준헌 신기원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재경 이지나 이주영 이현우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제홍
지자영 전희동 정 결 정선진
정성진 정은숙 정인교 정승철
정진영 지자영 조 단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하보라 코바야
시 메구 기지마 에미코 핸슨오
Christine Daniel Kim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Rachel Back Sam Lee Tommie
Njobvu

◈장로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재동
백 학 손진성 손정래 신중수
이광철 이덕한 이문호 이상덕
이준상 여훈필 장민용 장우진
조규배 조성민 허규회 홍관희
홍규석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헌식 서인택
최태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김진용
남명호 노용진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양숙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최정혜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소천

6/3(일) 강남B 전필수 성도 부친상 고 전용택
6/3(일) 분당A 김은기 집사 모친상 고 왕순임
6/4(월) 양천 고 허덕수
6/4(월) 서대문 탁종만 성도 부친상 고 탁재원
6/4(월) 일산 이영준 집사 부친상 고 이인열
6/4(월) 한강 최덕희 권사 부군상 고 박세만
6/4(월) 김포 장인수 집사 모친상 고 송화자
6/5(화) 양재 민경애 집사 부군상 고 노복식
6/6(수) 강촌 박경희 권사 모친상 고 서춘자
6/7(목) 고양은평 전예진 성도 부친상 고 전복규
6/7(목) 고양은평 장재근 성도 부친상 고 장진원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문창극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이소정, 권찬송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 입소, 입교생 모집
내용: 가출 및 가정복귀가 어려운 남자청소년 쉼터 입소 및 하나로꿈학교(교육청 지정 대안학교) 입교
대상: 입소생(15~20세) / 입교생(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문의: 유호연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이주현 과장(070-4489-6889)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유급강사(놀이치료사) 모집
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교육이수자, 경력자 우대
접수기간: 6월 1일(금)~6월 22일(금)
문의: 원혜림 사회복지사(02-3407-2762)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웃자단' 봉사자 모집
우울 및 자살 위험 어르신들 정서지원 봉사단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기간및장소: 6월~11월 활동 / 시립용산노인복지관
문의: 장수진 사회복지사(02-794-6100)

청파노인복지센터 실버카 후원요청
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실버카 1대
문의: 이소미 사회복지사(070-4340-2599)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문의: 이영환 팀장(02-985-3609)`

재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상담예약필수
(화-금 오전10시~오후5시, 토-일 오전10시~오후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검사(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 (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결혼·광고

■ 결혼

6월 16일 토요일 오전 11:00 서빙고 본당
이화명, 지연숙(군포교회)의 아들 이용영(온누리교회)
김진규, 전금자의 딸 김예원(온누리교회)

6월 16일 토요일 오후 2:00 서빙고 본당
오영근, 이민희(사랑의교회)의 아들
오정현(온누리교회)
이흥재, 신종아(온누리교회 집사, 권사)의 딸
이혜솔(온누리교회)

6월 16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홀
장구관, 정명자(온누리교회 집사, 집사)의 아들
장종원(온누리교회)
김용기(시온산교회 장로), (故) 김현실의 딸
김찬영(온누리교회)

■ 광고

두란노 IT사업부 모집
모집: 안드로이드 앱개발자, UI 디자이너
자격: 신입, 경력 무관
* www.duranno.com 지원

1200호 20180610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8. 6. 8. 오후 7:25 페이지 3

함께 웃다보면 위로가 되는 청년들의 공감 시트콤 <두근두근 마카롱 2018> 마지막 이야기

에피소드#6 이성에게 호감이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다가 사랑에 빠지게 된 셀리더 은남과 새신자 레아의 성경공부

에피소드#7 오늘따라 아내가 이상하다면?
이유 없이 쓰러진 한나 때문에 걱정 가득한 새신랑 현범, 이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

6월 16일, 23일 토요일
KNOCK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공개됩니다!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